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승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13)**

평안하십니까? 5차에 걸쳐 전도훈련을 진행하면서 주의 강한 군사를 세우는 것은 처절한 영적전쟁임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도를 한번도 하지 못한 장년들이 이번 전도훈련을 통해 전도에 자신감을 갖고 전도에 임하게 된 반면에 전도훈련에 올 수 있는 형제들이 세상에 묶여 오지 못해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5주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 교회, 주님의 강력한 무기

작년 11월 29일 프놈펜기쁨교회는 장년 1분과 청소년 2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꾸준히 나와 세례식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세례식이 끝난 후 그를 전도하고 양육한 순장의 눈에는 눈물이 흥얼 흥얼 고여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바라보는 것은 선교사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프놈펜 기쁨교회 세례식



교회론강의(매월 첫주 목요일)



5차에 걸쳐 진행된 전도훈련

작년 말부터 매월 첫주 목요일 새벽에 캄보디아GMP 선교회의 후배선교사인 박균상 선교사(조직신학 박사)를 초청해 교회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이 정립 되어서 교회의 본질과 기능, 속성 등을 바로 알아 그리스도와 연합과 한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전쟁터로 담대하게 나아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매월 첫주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금요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전도훈련이 프놈펜기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쁨도 있었지만 참석하기로 한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지 못해 교회리더들과 성도들이 새벽과 저녁에 더욱 기도로 영적전쟁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한 명의 예비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최소한 2-3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할 때 악한영의 메임에서 벗어나 훈련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중요한 지름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 올리브교회 개척 이야기

작년에 주님께 드리는 성탄절 선물로 6번째 교회인 올리브교회를 올려드렸습니다. 섬양리더의 어머니께서 땅을 헌납하셔서 그 땅에 예배당을 짓기 전까지 섬양 자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프놈펜기쁨교회와 여호수아교회등 전 교인들이 기쁨으로 헌금해서 새로운 부지에 흙을 부어 우기에도 지장이 없도록 지대를 높여서 먼저 캄보디아인들의 헌신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처소에 필요한 성경, 찬송, 선풍기, 등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프놈펜기쁨교회에서 사비 리더를 여호수아교회에서 빠리 전도사를 파송해서 올리브교회가 든든히 세워질때까지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브교회에는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처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섬양리더의 남편인 케잉 집사가 집(현 올리브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교회가 태동될 때에 사단의 공격도 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섬양리더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보호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섬양리더를 올리브 교회로 파송한 후 기쁨제자교회는 이름을 제자들의 교회로 바꾸고 그곳에 5명의 사역자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 정수기 설치와 화장실, 부엌 등 5명의 사역자가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리브교회 첫예배(20.12.30.)



올리브교회 어린이예배



올리브교회 새 성전부지

## 여호수아 교회 이야기

2월 28일에는 여호수아 교회 장년 빼섯형제와 청년 속지어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빼섯 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훈련을 받고 간암으로 있는 형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형님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숨을 거두어 온교인들이 기쁨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교회 장년들도 전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범을 보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저희 부부와 섬낭과 비, 마리, 섬앙과 케잉, 로타나, 촌리, 르티와 히응, 잔타, 테잇 피어론과 스라이뵈, 잔타와 시날, 스라이쿠잇, 시라이와 티어비, 잔다, 병봉, 청소년 소그룹 리더(린나, 니몰, 모니, 김학)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생명으로 영혼구원에 중심을 드리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화 사역이 누룩같이 번지도록
2. 프놈펜기쁨교회 청장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되어 어려운 장애물들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5차에 걸친 전도훈련을 통해 전도가 성령충만함 가운데 삶의 일부가 되도록
3. 올해 4월부터 가정교회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영혼구원과 제자훈련,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는 비전으로 온교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도록
4. 올리브 교회 신실한 청소년, 청년, 장년 그룹들이 세워지고 섬앙(케잉)리더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처소와 그 가족 구성원을 전신갑주로 보호하소서
5. 프놈펜기쁨교회와 새로운 올리브교회 교역자의 심방과 개인생활을 위해 중고오토바이 각각 1대씩 필요한데 속히 구비 되도록
6. 현재 여호수아 교회는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수아 교회에 필요한 예배당을 허락 하시고 새성전을 통해 복음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2021. 2.19.

김창영, 박송이, 성수, 경수 드림